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

02

2026
Febru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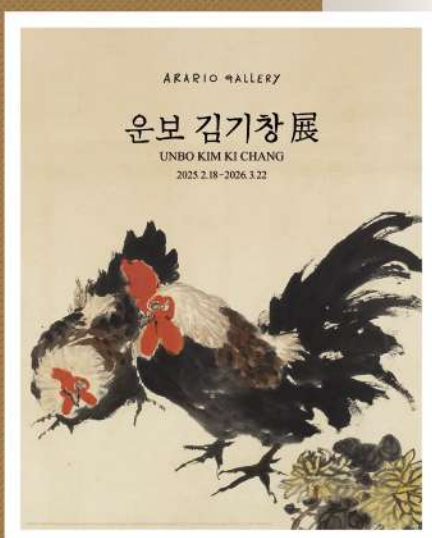
천안사랑



변화를 그려온 그림

운보 김기창의 한국화

아라리오갤러리 천안은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 운보 김기창의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 모은 전시를 선보인다.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어진 작업을 따라가며, 한국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식과 표현을 시도해 온 그의 변화를 차분히 살펴본다.



《운보 김기창》展

📅 2025년 2월 18일(화) - 2026년 4월 5일(일)

📍 아라리오갤러리 천안(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 매일 11:00~19:00(신세계 백화점 천안아산점 휴점일에 맞춰 휴관)

운보 김기창 1914~2001

“나는 소외된 나를 찾기 위해
한가지 길을 택했다.
그것은 예술가가 되는 것이며,
나는 화가가 되었다.”

운보 김기창은 1914년 서울에서 태어나 2001년까지 활동한 한국 근현대미술의 대표 화가이다. 어린 시절 병으로 청각을 잃은 뒤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 1930년 김은호 문하에서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에 들어섰다. 1930~40년대에는 조선미술전람회를 중심으로 인물화와 기록적 성격의 작품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1950년대 이후에는 필선과 화면 구성에 주목한 한국화를 전개하며 화풍의 변화를 이어갔다. 국전 심사위원과 대학 교수로 활동하며 후학을 길렀고, 한국화의 전개 과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 <청산호반(靑山湖畔)>(1981)

2 <밤새(부엉이)>(1972)


한국화를 새롭게 바라보다

운보 김기창의 작품은 한 가지 주제나 화풍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의 작업을 계속 새롭게 바꾸며 발전해 왔다. 그는 처음에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데서 출발했지만, 점차 화면의 구성과 형식 자체에 관심을 옮겼다. 이는 한국화가 지닌 전통적인 공간 표현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변화였다. 이후 그의 작업은 이야기나 대상 중심의 그림에서 벗어나, 붓의 움직임과 선의 밀도, 화면 전체의 긴장감과 리듬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확장된다. 눈에 보이는 형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붓질이 만들어내는 힘과 에너지를 드러내려 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화가 고정된 형식이 아니라, 시대와 작가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삶의 경험이 그림이 되다

운보 김기창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점은, 개인적인 고난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삶에서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로 풀기보다, 회화의 형식과 표현 방식 속에 담아냈다. 청력을 잃은 이후 그의 그림은 소리를 대신하듯 더욱 강한 선과 밀도 높은 화면으로 변화했고, 이는 작품 전체에 긴장감을 더했다. 그는 슬픔이나 비극을 직접 드러내기보다, 그림의 구조와 표현을 바꾸는 방식으로 삶을 받아들였다. 아내 박래현과의 사별 이후 나타난 민화풍 작품 역시 현실을 단순하게 그린 결과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낮추고 새롭게 구성하려는 선택이었다. 운보의 작품이 지금까지도 의미 있게 읽히는 이유는, 완성된 답을 제시하기보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그림, 그리고 변화와 결핍 속에서도 자신만의 표현을 끝까지 탐구한 태도가 작품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본 지면에 수록된 글과 사진은
아라리오갤러리와 (재)운보문화재단에서 제공받았습니다.

